

2018년 3월 20일, 표선면 세화2리 세화2리경로당, 문순덕(김은정·정이슬) 조사.
김세현(남, 1936년생, 표선면 세화2리)

- 줄거리: 밤에 나타나는 아주 큰 귀신은 닭이 울어야만 사라진다.

[제보자] 표선리 사람이 가마리 왕 제사 먹엉 가당 보면 메봉 잇어. 메봉 알아? 메오름. 거기서 바닷가 거문머채 있는 데 잇어. 돌이 이 집보단도 커. 그런 돌이 있는데. 꺼멍하난 거문머채주.

그 메오름에 한 가닥 놓고 거문머채에 한 가닥 놓고 헹 오득이 선 거라. 그순새라. 그 알로 지나갓젠 하믄 죽어 사람이.

제사 먹엉 가당 보니까 그것이 잇이난 닭이 울어야 그것이 엊어졌어.

닭 울 때?”장 누었다네 닭이 울어나난 그순새가 없어져 불었어. 그때사 지나가는 거지.

- 핵심어: 그순새(귀신!), 닭, 가마리, 제사, 메오름, 표선리